

다원적 사회로의 변화가 뮤지엄 건축의 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How the museum architecture has been affected by the social shift to the plural society since 1990.

고재민* / Ko, Jae-Min

문정묵** / Moon, Jung-Mook

임채진*** / Lim, Che-Zinn

Abstract

Since the 18th century the museums in Europe have accepted the social demand of the publicity and have played a role of social education and it lasted to the present. Recently, the society began to change it's direction. It is from the Universalism to the Pluralism. The Universalism is due to democratic society after 'the Civil Revolution' and standardized social system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Pluralism that starts with the decrease of the modern society is about the diversity and the activation of identity which has been disregarded since the Modernism.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o clarify how the museum's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had begun since the 18th century has been changed since 1990 and how these are related to the social alteration from the Universalism to the Pluralis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had been a simple circulation system and a unified spatial experience in the museum of Europe since 18th century to 1980's(ph1) while there had been a complex circulation system and a diverse spatial experience in the museum of Europe after 1990's(ph2). These mean that the museum of ph1 gave a unified social education to the visitors and they came to have a similar knowledge and emotion after their seeing the exhibition material while the museums of 'ph2' gave a diverse one and the visitor came to have a different knowledge and emotion to the same exhibition material. The museum which gives a unified social education is to produce a unified thoughts of people and it is because the social direction is the Universalism. In addition to this, the museum of diverse social education is to produce people of diversity and it is related to the Pluralism.

키워드 : 사회 변화, 보편주의, 다원주의, 뮤지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Background)

17세기 이후 미술의 엘리트화를 통해서 철저히 대중으로부터 격리되어왔던 미술은 프랑스 시민혁명(Civil Revolution)과 영국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그 모습을 들어내었고 이로 인하여 미술이 대중화가 되는 계기를 마련되었다.¹⁾ 즉, 궁정, 교회, 귀족 등 소수에게만 국한되던 미술이 민주주의(시민혁명)와 공업생산품에 대한 예술의 적용(산업혁명)으로 대중에게도 제공되는 계기를 마련되었고

이것은 일반 시민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뮤지엄(museum)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²⁾ 즉, 이제까지 귀족이상의 계급만이 누리던 사적 소유의 개념인 '창고 형 뮤지엄'이 공공성 혹은 대중성의 의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³⁾ 뮤지엄⁴⁾의 이러한 공공성과 대중성은 이전까지 미술과 문화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었던 일반 시민에게 뮤지엄의 사회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함

1)문정묵, 17세기 유럽미술관의 출현이 미술과 대중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5호, 서울, 2001, p.107

2)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서울, 1995, p.13

3)헤럴드 오즈본, 한국미술연구소 역, 옥스퍼드 미술사전, 서울, 시공사, 2002, p.390

4)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뮤지엄은 통상적 의미로 미술계 박물관(art museu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학과 조교수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으로써 최근까지 뮤지엄의 사회 교육적 역할이 유지되어왔다.⁵⁾

시민혁명에 의한 다수인의 평균화된 사고와 산업혁명에 의한 규격화된 삶은 이러한 사회 교육적 역할과 편승하여 18세기 이후 유럽의 보편적(Universalism)사회의 토대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1980년대 까지 지속되어 오던 보편적(Universalism)사회가 1990년을 기점으로 통일성, 규칙성, 평균화의 이름아래 소외되던 개별성, 개성, 독자성이 활성화된⁶⁾ 다원적(Pluralism)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문화 흐름 전반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상은 그것의 특정한 현상을 만들게 되며, 그 현상 중에는 규칙성 있게 표현되는 부분(non discursive regularity)이 있다. 즉, 추상적 개념의 사회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 상황을 통하여 보여지는데, 이들 중 규칙성 있는 사회적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회의 사회상을 검증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Levi Strauss)의 말대로 모든 문화적 현상이 그 문화가 속한 사회의 구조적 표현이라면⁷⁾ 이러한 보편적 사회로부터 다원적 사회로의 변화는 근대 이후의 뮤지엄의 특성중의 하나인 사회교육의 형태와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뮤지엄의 사회교육적 형태와 연관하여, 박물관에서의 관람자의 움직임이 지식전달 체계임을 감안할 때⁸⁾ 관람자 동선체계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동선체계를 규정짓는 뮤지엄의 공간 구성 및 형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18세기 이후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생성된 보편주의적(Universalism) 사회관이 최근에 이르러 표출되기 시작한 다원주의적(Pluralism) 사회관으로 전환되면서 뮤지엄(museum)건축에 미친 영향을 공간구조, 형태 및 건축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18세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지각변동이 뮤지엄 건축에 미치는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뮤지엄 건축의 위상 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지금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현상과 사회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뮤지엄의 관계를 정립하여 이 시대의 뮤지엄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의 정형을 밝힌다.

5) 뮤지엄의 교육적 측면은 국제박물관 협회 - 1948 뮤지엄 헌장, 1969 ICOM 결의, 1973 Unesco 회의 그리고 최근의 1989 ICOM 정의-의 '박물관 정의'에 기술되어있다.

6) 竹田青, 김원귀 역, 현대사상의 모험, 우석, 서울, 1961, p.9

7) Simons Jon, From Kant to Levi Strauss,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2003

8) 최윤경·김재연, 박물관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6호, 서울, 2000, p.51

1.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8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뮤지엄(museum)중 유럽의 대표적인⁹⁾ 40개를 선정하고 이들을 다시 1990년을 기준으로 두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18세기 이후의 뮤지엄이 선정된 것은 18세기 이후 현재와 같은 대중적 의미의 뮤지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1990년이 영역분류의 기준이 된 것은 사회적 변화의 측면에서 1980년대까지는 근대사회 이후의 보편성이 유지되었으나 1990년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보편성을 부정하는 다원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또한 본 연구에서 논하는 40개의 각 뮤지엄에 대한 분석지표의 변화가 <표 1>과 같이 1990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 연구의 대상이 유럽에서 건설된 뮤지엄으로 선정된 이유는 유럽이 프랑스 시민혁명과 영국 산업혁명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지각변동의 영향권 안에 있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원주의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선정된 사례들의 공간에 대한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1) 공간구성, (2) 공간형태, (3) 프로그램(기능)의 크게 3분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실시되었다. (1) 공간구성(Spatial Configuration)의 측면에서는 스페이스 신택스를 활용하여¹²⁾ 공간구조의 분석을 시행하는데 이를 통하여 동선체계를 이해한다. 공간구조의 분석은 ① G-value 분석(Gridity는 액시얼 라인(axial line)의 수를 컨벡스 스페이스(convex space)의 수로 나눈 것인데 각각의 컨벡스 스페이스가 얼마나 시각적 그리고 공간적 침투성에 의하여 선형으로 연결되는가를 정량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가 높을수록 직교하는 공간조직에 따라 일방적인 동선체계를 이루며, 낮을수록 미로와 같은 복잡하고 변형된 형태(deformed)의 공간조직을 이루며 다양한 동선체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J-graph 분석[각 단위공간의 연결상태를 통해 하나의 원(circle)형을 이론상태를 r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ring의 개수를 통해 공간의 분화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ring의 개수가 높을수록 보다 복잡한 공간구성을 갖추게 되며 따라서 동선의 선택범위도 그만큼 넓어져 다양한 공간적 경험이 예상되고, ring개수가 낮을수록 획일적인 공

9) 여기서 연구대상의 대표성은 대중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쉽지 않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례는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의 박물관 소개 인터넷 사이트와 뮤지엄 관련서적이 사용되었다.

10) 문정목·임태진, 18세기 이후 유럽의 뮤지엄 건축의 동선체계에 나타난 보편적 경향과 다원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0권 제4호, 2004년 4월

11)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 즉 미국, 일본의 뮤지엄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각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12) 스페이스 신택스(space syntax) 이론은 이미 다른 논문에서 많이 기술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하였다.

간적 경험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출입구 연결지도를 이용한 분석[각 전시공간의 출입구를 통과한 다른 전시공간으로의 시각적 침투성(permeability)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관람객의 전체 전시 공간의 구조에 대한 시각적 이해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즉, 각 전시공간의 출입구가 한 직선상에 있을 경우 관람객의 시야는 이들 출입구를 통하여 다수의 공간에 대한 위치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각 전시공간의 출입구가 서로 다른 직선상에 위치할 경우, 관람객의 시야는 이들 출입구가 제공하는 제한된 가시영역으로 인하여 좁아지고 전체공간에 대한 위치와 방향의 이해도가 떨어진다]으로 이루어진다.

(2) 공간형태(Spatial Form) 측면에서는 ① 공간의 정형성과 비정형성 분석[공간이 정형하다는 것은 전시공간을 이루는 물리적 환경이 전시물의 강조를 위하여 동일한 형태를 구성하며 단순하고 minimal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형하다는 것은 보다 복잡한 형태로서 전시의 효과를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전시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② 공간의 규격화와 비규격화 분석 [각 단위공간의 형태를 타입별로 분류하고 같은 타입의 공간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전체 단위공간수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공간형태(공간을 구축하는 물질의 형태)가 단순함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공간형태가 복잡함을 의미한다.]을 통해 사회상에 따른 공간형태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3)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① 전시프로그램의 배치상태 분석, ② 기획전시실 구성비 분석을 통해 뮤지엄 지식의 다양화 및 전달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이들 분석의 결과들이 의미하는 공간체계와 동선과의 관계를 뮤지엄의 사회교육과 관련시켜 설명하여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본론

2.1. 분석

(1) 공간구성 (Spatial Configuration)

뮤지엄의 공간구조의 체계는 관람객의 동선체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¹⁴⁾, 동선은 뮤지엄의 지식이 보유되어 있는 각 전시실의 공간적 전개에 특징을 주게 되고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관람객은 각 전시실이 보유한 지식을 전달받는다. 이것은 결국 뮤지엄의 사회교육 방법을 의미하는데 특정한 공간조직과 동선체계로 관람객이 전달받은 지식이 유사할 경우 획일화된 사회구성원의 양산을 위한 보편적 사회교육을 지향하는 것이고 상이할 경우 다양한 사고를 지닌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는 다원적 사회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⁵⁾

13) 문정목·임채진, 전시공간의 복잡성에 나타난 사회 다원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 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6호, 서울, 2002

14) 최윤경, 박물관 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3호, 서울, 2001

① G-value를 이용한 분석

각 뮤지엄의 액시얼 라인의 수를 컨벡스 공간으로 나눈 G의 평균값은 <표 1>에서와 같이 ph1의 경우 0.403이고 ph2의 경우 0.699이다. 즉, ph1의 경우 각각의 컨벡스 공간이 보다 적은 수의 액시얼 라인을 통하여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고 ph2의 경우는 보다 많은 수의 액시얼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ph1의 공간적 구조가 시각적으로 보다 깊게 침투할 수 있어서 많은 단위공간(convex space)을 하나의 단위(axial line)으로 엮을 수 있는데 비하여 ph2의 경우 이러한 시각적 침투가 폐쇄적인 물리적 환경에 의하여 막힌다는 것이다. 결국, 1990년 이전에 있어서 뮤지엄의 공간이 보다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에 가깝고 1990년 이후의 뮤지엄의 공간이 보다 변형된 체계(deformed system)에 가깝기에 전자에 비하여 후자가 보다 미로와 같은 길 찾기가 힘든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J-graph (ring개수를 이용한) 분석

각 단위공간이 이루는 ring개수의 평균값은 ph1의 경우 102개이고, ph2의 경우 197개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ph1과 ph2를 비교하여 볼 때 ph2가 ph1에 비하여 공간의 분화정도가 심하며, 보다 다양한 동선이 예상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1990년 이전에 있어서 뮤지엄의 공간이 보다 획일적인 공간적 경험을 가져다주며, 1990년 이후의 뮤지엄의 공간이 보다 공간의 분화정도가 심하기에 전자에 비해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출입구 연결지도를 이용한 분석

ph1의 경우, 전시실의 각 출입구를 연결한 <그림 1>을 보면 각 출입구가 같은 방향으로(한 가지 축선상에 있을 경우)있을 경우, 각 전시실의 출입구가 프리 플랜(free plan)이나 오픈 플랜(open plan)인 ph1-14와 ph1-16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비하여 ph2의 경우, ph2-02, ph2-06, ph2-14의 출입구와 ph2-08, ph2-10, ph2-13의 출입구중 일부가 일직선상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출입구의 위치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ph1의 뮤지엄의 출입구가 일직선상에 놓임으로서 다수의 다른 전시실에 대한 시각적 침투(permeability)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공간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는데 비하여 ph2의 경우 대부분의 출입구가 하나 이하의 전시실에 대한 시각적 침투만이 가능함으로서 전체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운 미로와 같은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간형태 (Spatial Form)

뮤지엄에 있어서 공간의 형태는 일반화된 보편적 형태 혹은

15) 문정목·임채진, 18세기 이후 유럽의 뮤지엄 건축의 동선체계에 나타난 보편적 경향과 다원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0권 제4호, 2004년 4월

<표 1> 시기별 뮤지엄의 공간구조 및 형태, 기능에 따른 분석자료 값

	이름	건립 연도	Axial line 수	convex space	G-value	링수 (J-graph)	free plan	open plan	movable partition	출입구 연결도	전시실 형태	구조	규격 value	program	기 회 전시장
Ph1-01	Glyptothek Munchen	1830	11	79	0.139	1				○	사각형, 일부원형	대칭	1,500	○	×
Ph1-02	Das Altes Museum	1830	38	88	0.134	10				○	사각형	대칭	6,538	○	×
Ph1-03	Pergamon	1843	21	76	0.276	4				○	사각형	대칭	8,277	○	×
Ph1-04	Fitzwilliam Museum	1848	33	62	0.532	5				○	사각형	비대칭	9,878	○	×
Ph1-05	British Museum_Old	1852	39	149	0.261	2				○	사각형	대칭	8,000	○	×
Ph1-06	Gemaldgalerie der Akademie der Bildenden Kunst	1877	9	19	0.473	3				○	사각형	대칭	0,545	○	△
Ph1-07	Musee des Beaux-Arts, Lyon	1878	24	50	0.480	2				○	사각형	비대칭	1,800	○	×
Ph1-08	Kunsthistorisches Museum	1891	69	157	0.439	15				○	사각형	대칭	6,300	○	×
Ph1-09	Royal Museum of Scotland	1901	110	102	1.078	8				○	사각형, 일부 비정형	대칭	1,846	○	△
Ph1-10	National gallery	1910	44	126	0.349	8				○	사각형, 일부 팔각형	대칭	6,041	○	△
Ph1-11	Musee Rodin	1919	21	82	0.256	1				○	사각형, 일부원형	대칭	2,333	○	×
Ph1-12	Lembachhaus	1929	47	99	0.474	6				○	사각형, 일부원형	대칭	7,391	○	△
Ph1-13	Alte Pinakothek	1937	31	87	0.356	6				○	사각형	대칭	15,157	○	×
Ph1-14	museum for small city	1942	14	37	0.378	5	○			△	사각형	비대칭	0	○	×
Ph1-15	Wilhelm-Lehmbruck Museum Duisburg	1964	30	71	0.422	5	○			○	사각형	비대칭	1,000	○	×
Ph1-16	Die Neue Nationalgalerie, Berlin	1968	35	59	0.593	7	○	○	○	△	사각형	대칭	0	○	○
Ph1-17	Joan Miro Fundacio	1975	18	60	0.300	2				○	사각형	비대칭	0	○	△
Ph1-18	Bauhaus Archive	1979	12	85	0.141	2	○			○	사각형	비대칭	0	○	△
Ph1-19	Neue Pinakothek	1981	50	106	0.471	9				○	사각형	비대칭	4,486	○	×
Ph1-20	Staatsgalerie Stuttgart	1983	40	196	0.204	1		○		○	사각형	대칭	2,000	○	△
소계			34.8	89.5	0.402	102	4	2	1	○:18 △:2			4,154	○:20	○:1 △:7
Ph2-01	National gallery/Sainsbury Wing	1991	40	70	0.571	6				×	사각형, 일부 비정형	비대칭	0	×	△
Ph2-02	Museum fur Moderne Kunst	1991	54	142	0.390	14		○		△	삼각형, 사각형, 비정형	비대칭	0	×	○
Ph2-03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2	39	49	0.796	4		○		×	사각형, 일부원형	비대칭	0	×	○
Ph2-04	kunst museum bonn	1992	99	125	0.792	26			○	×	사각형	대칭	0,235	×	△
Ph2-05	Kunsthil en Rotterdam	1993	31	34	0.911	3		○		×	사각형	비대칭	0	×	○
Ph2-06	museo de bellas artes de caceres	1993	24	47	0.510	10				△	사각형	대칭	0	×	△
Ph2-07	museo de la ciencia y del cosmos de tenerife	1993	44	76	0.579	0				×	비정형, 타원	비대칭	0	×	△
Ph2-08	centro gallego de arte conyemporaneo	1993	62	106	0.585	10				△	사각형, 비정형	비대칭	0	×	△
Ph2-09	Museo d'Arte Contempo	1995	87	109	0.798	5		○		×	사각형, 일부원형	비대칭	0	×	○
Ph2-10	Beyeler Foundation Museum	1997	39	39	1.000	4			○	△	사각형	대칭	0	×	△
Ph2-11	Kunsthau Bregenz	1997	62	65	0.953	4			○	×	사각형	비대칭	0	×	○
Ph2-12	Guggenheim Museum	1997	96	129	0.744	2		○		×	사각형, 비정형	비대칭	1,000	×	○
Ph2-13	Museum Het Valkhof	1999	42	69	0.608	15				△	사각형	비대칭	0	×	△
Ph2-14	Tate Liverpool	1998	62	92	0.674	3		○		△	사각형	비대칭	1,000	×	△
Ph2-15	Kiasma Museum for Contemporary Art	1998	37	55	0.672	1				×	사각형	비대칭	0	○	○
Ph2-16	Tate Modern	2000	124	147	0.843	14			○	×	사각형	대칭	5,800	×	○
Ph2-17	Leopold	2001	52	114	0.456	10				×	사각형	대칭	3,555	○	△
Ph2-18	Kunsthau Graz	2002	56	84	0.666	42			○	×	비정형	비대칭	0	×	○
Ph2-19	K21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2002	97	145	0.669	11				×	사각형	대칭	1,700	×	△
Ph2-20	Pinakothek der Moderne	2002	109	142	0.767	13				×	사각형, 일부비정형, 반원형	대칭	1,272	×	△
소계			62.8	91.95	0.698	197				9 3 △:6 ×:14			0,728	○:2 ×:15	○:9 △:11

특수하고 다양한 형태의 측면과 규격화된 형태 및 비규격화된 형태의 측면에서 분석되는데 전자의 경우 일반화된 공간형태가 전시물에 미치는 시지각적 영향이 미비한데 비하여 특수한 공간형태는 전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기에 전시물을 보는 위치 및 각도에 의하여 다양한 의미가 전달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규격과 비규격의 차이는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근대사회 이후 규격화된(standardized) 생산물과, 정보혁명이후 등장한 비규격화된 생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성과 다원성을 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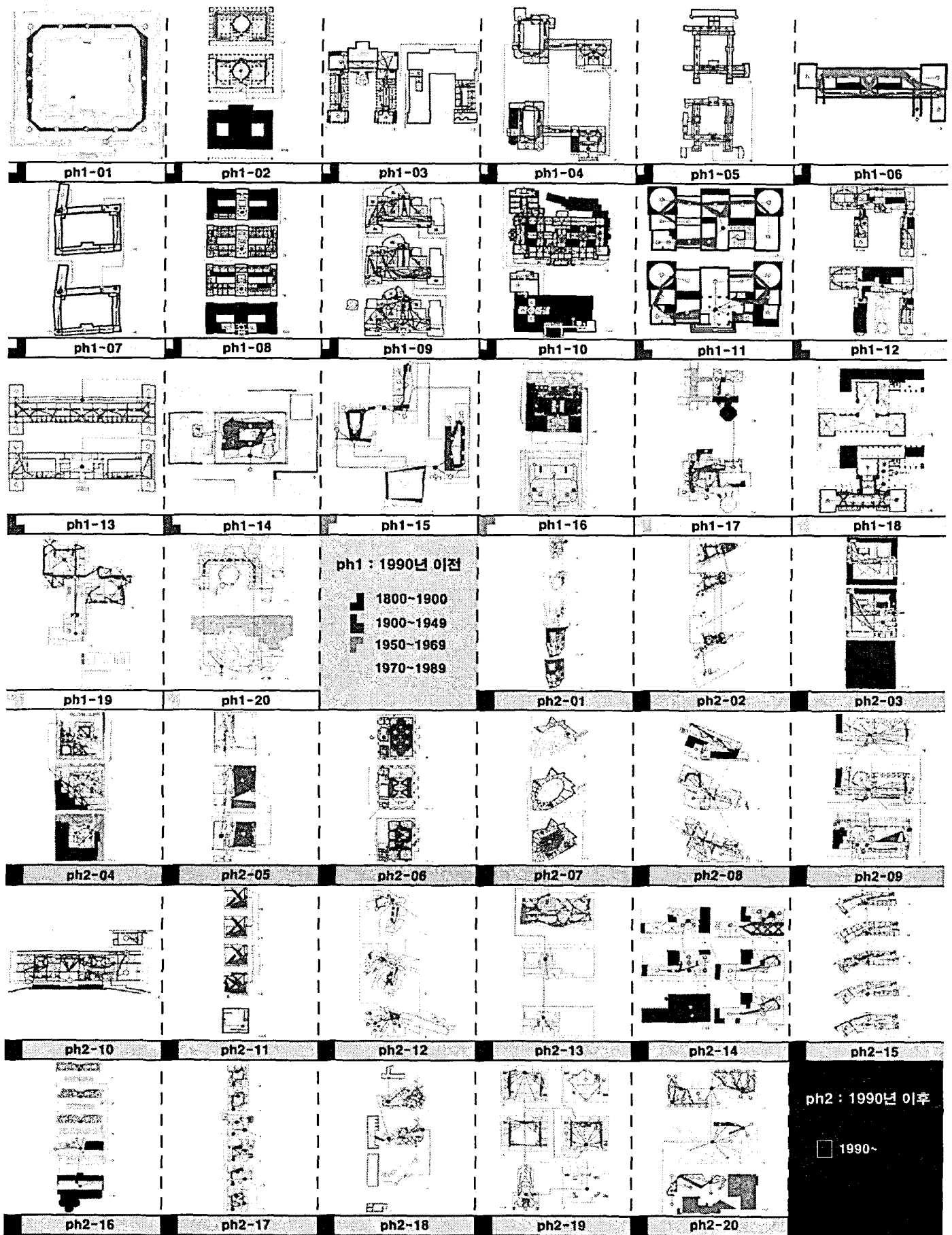
① 공간의 정형성과 비정형성 분석

<표 1>에서 보듯이 ph1의 경우 공간이 ph-09와 같이 일부 비정형 공간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ph2는 비정형 공간이 증가함은 물론 삼각형이나 타원과 같은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1990년 이전의 뮤지엄에서는 전시공간을 이루는 물리적 환경이 전시물의 강조를 위하여 동일한 형태를 구성하며 전시물의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1990년 이후의 뮤지엄에서는 보다 복잡한 형태로서 전시물 자체의 감상뿐만 아니라 전시효과를 높이면서 공간의 물리적인 형태역시 하나의 전시행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형태의 변화는 전시행위와 맞물려 1990년 이전의 뮤지엄과는 달리 1990년 이후로 접어들면서, 전시의 배경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인 역할로서 표면으로 들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공간의 규격화와 비규격화 분석

각 단위 공간의 형태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규격화 되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규격-value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표(1)에서와 같이 ph1의 경우 4.154이고 ph2의 경우 0.729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h1의 경우 ph1-14, ph1-16, ph1-17, ph1-18의 4 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림 1> 시기별 유지엄의 J-graph상의 ring구조 및 출입구 연결지도

ph-2의 경우 ph2-16, ph2-17을 제외한 대부분이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ph1의 공간형태가 뮤지엄 건축에 있어서 초창기의 선건축 후전시의 건축형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ph2의 공간형태는 전시를 먼저 계획하고 이것을 뮤지엄 건축에 반영하는 최근의 건축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90년 이전의 뮤지엄은 공간의 형태가 규칙적이고 패턴화 됨에 따라 관람자의 동선을 일방적 그리고 획일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동일한 전시경험을 제공하며, 1990년 이후의 뮤지엄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형태를 통해 관람자에게 다양한 동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감성을 제공하게 됨을 알 수 있다.

(3) 프로그램

건축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레이아웃(programme layout)과 가변성 있는 전시공간(기획전시)의 시각에서 논의되는데 전자가 프로그램 레이아웃을 통하여 전시의 순서를 결정하므로 뮤지엄의 지식의 의미가 다양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안이고, 후자의 경우는 뮤지엄의 지식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문제이다.

① 전시프로그램의 배치상태 분석

레이아웃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관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¹⁶⁾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ph1의 경우 20개관 모두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것에 비하여 ph2의 경우 대부분 순서없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90년 이전의 뮤지엄에서는 프로그램의 순차적 배치로 인하여 전시의 순서역시 순차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 이후의 뮤지엄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전시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됨을 나타낸다.

② 기획전시실 구성비 분석

ph1과 ph2의 기획전시실의 구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해본 결과 ph1의 경우는 8개관이 기획전시실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관에서의 기획전시실의 상대적 비율이 매우 낮는데 비해, ph2의 경우는 20개관 모두 기획전시실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관의 구성비 또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 이전의 뮤지엄은 획일적인 지식의 전달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1990년 이후의 뮤지엄은 보다 다양하고 변화가 가능한 지식의 전달체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18세기 이후 모더니즘과 함께 시작된 보편적 사회가 1990년을 기점으로 다원적 사회로 변화하면서 뮤지엄 건축의 공간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 1990년을 전환점으로 한 공간구조의 변화는 관람자의 동선체계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획일적 동선체계로부터 다양한 동선체계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뮤지엄과 같은 지식중심의 건축물에 있어서 동선이란 지식전달체계임을 가정할 때, 획일적 지식전달체계로부터 다원적 지식전달체계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공간형태의 변화는 정형화된(기하학적 형태) 전시공간으로부터 비정형화된(탈 기하학적 형태) 전시공간으로의 변화와 규격화된 전시공간으로부터 비규격화된 전시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두 경우 모두 보편적 형태의 전시공간으로부터 다원화된 형태의 전시공간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전시물에 대하여 배경으로서의 역할만이 강조되던 전시공간이 1990년 이후 전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선건축 후전시라는 보편적 뮤지엄 건축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시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건축계획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전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조직화된 배치방식(연대기별 배치나 동일 프로그램의 인접배치)에서 벗어나 산란된 배치방식(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층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란된 배치를 지향하는 것)을 1990년 이후의 뮤지엄에서 지향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1990년 이후, 기획전시실의 증가는 다양한 공간구조, 다양한 지식 그리고 기획전시실의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체공간상에 있어서 위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다원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서울, 1995
2. 서상우, 세계의 미술관, 기문당, 서울, 1995
3. 문정목, 전시시나리오에 따른 동선과 전시장의 event적 요소의 관계에 관한연구, 계원논총, vol5, 1999
4. 문정목·임채진, 전시공간의 복잡성에 나타난 사회 다원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학회논문집, 통권 제5호, 2002
5. 문정목·김기상·임채진, 17세기 유럽미술관건축의 출현이 미술관 대중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박물관학회논문집, 통권 제5호, 2002
6. 김용승·박정대, 최근 미술관 구조의 다양성 수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12호, 서울, 2001
7. 최윤경·김제연, 박물관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12호, 서울, 2002
8. 최윤경, 박물관 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3호, 서울, 2001
9. 최재필·백승호, 공간구조와 길찾기 효율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7호, 서울, 2002
10. 엄준상·유윤진·조형사, 서울산업대학교출판부, 서울, 1985
11. 헤롤드 오즈본, 한국미술연구소 역, 옥스퍼드 미술사전, 서울, 시공사, 2002
12. 리오넬로 벤추리, 김기주 역, 미술비평사, 문예출판사, 서울, 1988
13. David Finn, 정준모 역,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 시공사, 서울, 1993
14. Young Ook KIM, Spatial Configuration, Spatial Cognition and Spatial Behavior, University of London, London, 1999

16)지면관계상 각 관의 프로그램의 배치상태에 대한 표현은 생략하였다.

15. JM MOON, Cathedral between Logic and Mythologic, Dissertation for ASS,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1998
16. Kurogawa, Kisho, The Philosophy of Symbiosis, The Academy Edition, London, 1992
17. Andres C Papadakis, AD Modern Pluralism, The Academy Edition, London, 1991
18. Hillier & Hanson,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 Hillier Bill, Space is the Machin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95
20. Jonathan Crowther.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Univ. Press, 1997
21. Nicholas Serota, Experience or Interpretation-The Dilemma of Museums of Modern Art, Thames & Hudson, London, 1996
22. Karsten Schubert, The Curator's Egg-The Evolution of the Museum Concept from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present day, Christie's Books, London, 2000
23. Daniel K Sheman and Irit ogoff, Museum Culture-Histories, Discourses, Spectacles, Univ of Minnesota Press, Minnesota, 1994
24. Levin, MD, The Modern Museum: Temple or Showroom, Dvir Publishing House, Jerusalem, 1983
25. Simons Jon, From Kant to Levi Strauss, Columbia Univ. Press, NewYork, 2003